

# ‘대회의 꽃’ 봉사자들, 친절·성실로 성공대회 이끈다

### “외국인들에 마음 따뜻한 도시로 기억되길”

#### 국제우호친선협회 부회장 김예숙

“외국인들에게 광주가 마음 따뜻한 도시로 기억된다면, 광주 아이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예숙 주석회사 오손도손대표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예멘,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선수단의 특별 서포터즈 단장을 맡고있다.

김씨가 몸담고 있는 사단법인 국제우호친선협회는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 등 국제행사에 봉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을 아낌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다.

김씨는 “국제우호친선협회의 138명의 회원이 194개국 서포터즈 단장을 나눠 맡아 선수단의 입국부터 귀국까지 17일간 진행되는 광주수영선수권대회 기간동안 선수들의 광주생활을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를 포함한 국제우호친선협회 회원들은 각국 선수단 환영·환송, 경기장 응원, 선수단 관광 안내 등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실제로 김씨는 지난 7일부터 진행된 각국 선수단 환영식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환복은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옷이라고 생각해서 환영식 행사마다 입고 있다”며 “제가 단장을 맡고있는 3개국 환영행사뿐 아니라 환영행사가 열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참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씨는 광주 알리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국제우호친선협회는 광주에 대해 알고싶거나 관광을 요청하는 선수단을 대상으로 광주시티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주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는 도시이다 보니 선수들에게 광주를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



국제 대회-문화행사 성공의 관건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 노력이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도 묵묵히 땀 흘리는 봉사자들이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다. 사진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2000여명 자원봉사자들의 발대식 모습.

### “대회 기간 중 광주 맛집투어 하고파”

#### 장내 아나운서 존 메이슨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도시 광주 모든 것이 만족스럽습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 첫 경기인 다이빙 경기가 열리는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 수영장의 청량함처럼 맑고 경쾌한 목소리로 관람객들의 귀를 단번에 사로잡은 사람이 있다.

경기장 내 아나운서를 맡고 있는 존 메이슨(John Mason·미국)씨다. 장내 아나운서는 스포츠 경기가 열리기

전 경기장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선수 소개, 경기 관련 정보를 관람객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해 경기에 대한 이해와 몰입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

존 메이슨씨는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국제수영연맹(FINA) 주관 경기의 장내 아나운서를 수년째 맡고 있어 전 세계 도시를 많이 방문했지만 광주는 특히 인상적인 곳이다”며 광주를 찾은 소감을 전했다.

이어 그는 “광주가 맛의 도시라고 들었는데 비빔밥과 김치가 정말 맛있었다. 특히



고추장의 매운맛이 아주 매력적”이라며 “광주가 가진 멋진 이야기와 음식, 광주시민들의 사랑을 환대하는 방식 그리고 ‘광주사

람’까지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존 메이슨씨는 호주 출신으로 영국 런던에서 자라 현재는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모델 활동을 하다 방송에 매력을 느껴 진행자로 전향을 한 지 10년이 넘었다. 장내 아나운서는 그가 영상제작을 위해 하는 활동 중 하나며 주된 업무는 방송 송출용 경기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다.

그는 “대회 기간 동안 맛의 고장 광주의 다양한 맛집 투어도 하고, 영국에서도 유명한 치맥(치킨+맥주)도 맛볼 것이다”며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BTS 공연을 보기 위해서라도 한국을 다시 찾을 것 같다”며 웃었다.

/특별취재단=김한영 기자 young@

### “매일 땀에 흠뻑 젖지만 자부심은 커요”

#### 마스코트 ‘달이’ 노호정

“마치 사우나에 들어온 듯 매일 땀에 흠뻑 젖지만, 저에게는 자부심과 용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꿀 알바’입니다”

귀여운 캐릭터와 앙증맞은 동작으로 관객에게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식 마스코트 ‘수리, 달이’ 속 달이의 주인공인 노호정(27·전남대 기계공학과)씨.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부에서 달이로 활동하고 있는 그는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에도 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라는 사명감을 갖고 무거운 탈과 두꺼운 옷을 입은 채 매일 경기 현장을 누비고 있다.

그는 친구의 권유로 ‘지옥 알바’라고 불리는 인형 탈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노씨는 “요즘은 취업 준비를 할 때도 금전적인 여유가 없으면 힘들다. 탈 아르바이트로 용돈도 벌고 대회의 얼굴 역할도 할 수 있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씨는 주로 국제공항이나 대회 관련 주요 행사에 단골손님으로 등장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알리고 있다.



무더위 때문에 땀으로 범벅이 돼 갈아치운 인형 옷만 2벌이다. 30도가 넘는 피약벌 아래 두꺼운 탈이 탈을 쓰고 물 한 모금 마시기 힘들지만, 노씨는 마냥 함박웃음을 짓는다.

그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대학생인 제가 마스코트 역할을 맡은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며 “무더위에 장마까지 겹치면서 일은 힘들지만, 고향에서 열리는 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단=김민석 기자 mskim@

### “드라마로 한국어 배워...통역봉사 행복”

#### 일본어 통역봉사 고자와 요코

“통역봉사를 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을 시작으로 좀 더 큰 대회들이 광주에서 개최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자와 요코(56·일본)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자원봉사자는 “2015 광주하계 유니버시아드에 이어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일본어 통역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영광”이라고 말했다.

고자와씨는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웠다고 한다. 그 덕분에 원어민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한다.

그는 “드라마 ‘보고 또보고’를 보고 한국어를 터득했다”면서 “가수 이선희와 인순이를 좋아해 노래를 즐겨 듣고 따라 부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지난 1994년 한국 여행 중 우연히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한 뒤 지금까지 한국에 살고 있다.

고자와씨는 “남편을 처음 만났을때는 남편이 일본어를 배우면서 일본어로 대화를 나눴다”면서 “어느 순간 남편이 일본어



가 어렵다고 포기하면서 그때부터 모든 대화는 한국어로 해 언어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봉사를 하며 체득한 겸손과 상대를 배려하는 자세는 살면서 큰 도움됐다고 한다. 자원봉사를 계속하는 이유다.

고자와씨가 본격적으로 일본어 통역 봉사활동에 뛰어 든것은 2002 한일월드컵 때부터다. 광주시 서구 쌍촌동에 살고 있는 고자와씨는 지난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때도 일본어통역으로 봉사했다. 고자와씨는 2년마다 열리는 광주 비엔날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광주실버박람회등에서도 활약했다.

고자와씨는 “광주에 찾아오는 일본인에게 불편함이 없는 봉사를 펼쳐 이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김한영 기자 young@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주)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상담문의. 최 선 규 H.P 010-3605-5000